

## 법무사들 “금융·공공기관 갑질 심각”

법무사협회, 전국 회원 대상 불공정 사례 첫 전수조사

거래상 지위 남용 덕없이 낮은 보수 일방적으로 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미루고 계약 외 업무도 맡겨  
카드·보험 가입 강요... 서류발급 대행 등 심부름까지

법무사업계를 상대로 한 공공 기관과 금융기관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주요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무사 보수를 후려치는 것은 물론 무보수로 가일일을 해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구를 거절하는 법무사는 거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무사협회 등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순)는 지난 한 달 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등 18개 지방법무사협회와 함께 전국 법무사를 대상으로 '공기업·금융기관의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불공정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법무사의 거래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무사단체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보가 입수한 피해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6곳과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및 국가투자은행 상당수가 법무사들을 상대로 오랜기간 불공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들은 이들 기관이 스커

래상 지위를 남용해 덕없이 낮은 보수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지급을 지연하는가 하면 △부수적인 업무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본 계약과 관련 없는 업무를 떠맡기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공기업은 △법무사 보수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보수를 강요하면서 △특정 개인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법무사들은 주장했다.

보증보증증권 발급시 대리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본인 이 출석하도록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현행 방침 때문에 노인이나

환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카드·보험·주택청약·펀드 등 가입과 불필요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납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으며 △거래 법무

사에게 권원보험 등 특정 금융상품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서류발급 대행 등 위임사무 외 업무를 무보수로 심부름 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사는 “은행 직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료 무료로 해줄 것

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며 “법무사에게 손해가 날 경우에는 다른 등기업무 보수를 부풀리며 되지 않느냐며 사실상 은행 직원들이 배임행위를 권유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B법무사는 “확정일자·공부열람 등 부수업무를 법무사에게 비용 지급 없이 수시로 전가한다”

【2면으로 계속】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2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콘퍼런스에서 보이체코 포스톨스키(맨 오른쪽) 유럽 사법연수 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 “사법연수,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 모색”

사법연수원, '세계 동향과 과제' 국제콘퍼런스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승)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 4층에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일본·유럽·싱가포르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사법연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사법연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뷰 9면>

성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여러 나라 제도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비교하며 토론한다면 이상

적인 사법연수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지와라 아유시 일본 사법연수소 부교수는 “판사·관사보(인관 후 10년 미만인 법관)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실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심화하고 판사로서 넓은 시야의 높은 식견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단기 1주일, 장기 1년) 동안 언론사, 민간 기업에서 업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파견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윌리엄 브룬슨(William Brunson)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특별프로젝트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00명 이상의 법관과 1만8000명의 법원 직원 이 근무하는데 사법부 연수 담당 직원은 50명 이상 있다”며 “또 130개 이상의 오프라인 과정, 30개의 사법·행정 과정, 100개 이상의 온라인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권오곤(65·사법연수원 9기) 국제형사재

판소 당사국총회 의장과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 강현중(75·6기) 사법정책연구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행정법원장, 이경훈(59·16기) 서울회생법원장, 노태약(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허부열(56·18기) 법원도서관장, 박기태(60·14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형규 로스쿨협의회장, 문재원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보이체코 포스톨스키(Wojciech Postulski) 유럽 사법연수 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Training Network) 사무총장, 베네스 알다나(Benes Aldana) NJC 학장 등 국내외 법조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